



해외 리포트

토와다시의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Arts Towada'**

임준홍 _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아오모리현 토와다시는 예술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Arts Towad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Arts Towada' 프로젝트는 토와다시 중심상점가와 인접한 1.1km의 상징거리인 '관청가(騎街道)' 전체를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스트리트퍼니처를 만들고, 다양한 예술작품과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토와다시현대미술관이 개관되었고, 2014년 봄에는 미술관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체험 가능한 대형예술작품이 전시된 아트광장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관청가' 보행로에는 스트리트퍼니처형의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구 6만 명의 작은 도시에, 개관이후 100만 명이상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게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도쿄 근처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Arts Towada'는 토와다시 시장(市長)의 예술 사랑과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으며, 과거 이 지역에서 전투말(馬)을 육성하던 장소적 특성이 'Art'와 결합한 프로젝트이다. 특히, 일본의 대부분의 마을만들기에서 강조하는 주민으로부터의 사업이 아닌 시장(市長)의 판단과 끊임없는 시민을 향한 설득과 참여로 지금의 결실을 맺었다.



* 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 'Arts Towada' 의 봄



* 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 'Arts Towada' 야외예술존

■ 토와다시 현대미술관

개관이념 및 배경

토와다시는 '감동·창조도시·사람이 빛남, 자연이 빛남' 거리의 개성이 빛나는 '이상향'을 미래도시상으로 내걸고, 자연·마음·살림살이·일·시민 '감동·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토와다시현대미술관은 이런 미래도시상을 바탕으로, 현대예술을 활용하여 시민활동·시민문화·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하나의 기본 이념과 3개의 활동이념을 내걸고 감동과 창조의 원동력이 있는 'Art Towad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예술의 감동을 공유하는 마을 토와다를 세계에 발산하고, 현대예술에 의한 마을 활성화, 시민은 물론 토와다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함께 행복한 공간이 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 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 토와다시현대미술관 건물배치

2008년에 개관한 토와다시현대미술관은 ‘Arts Towada’ 핵심시설로서 마을만들기와 예술이 함께할 수 있는 정책에 기반하여 탄생되었다. 본 미술관은 예술을 통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열린 시설로,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21인의 예술가들의 커미션워크(commission work)전시와 그 밖에 예술문화활동 지원과 교류를 촉진하는 거점시설로 상설전시공간, 기획전시공간, 체험공간 및 시민활동공간, 야외이벤트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관의 특징은 각각의 전시공간이 ‘예술을 위한 집’으로 독립되어 있고, 부지 내의 건물을 분산배치하고 유리 복도로 이어놓았다는 것이다. 각 전시공간을 독립 배치하여 각각의 예술작품에 맞춰 건축공간을 만들어내고,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산형구성은 광장과 건물이 서로 연결하는 관청가 거리의 특징에 착안하여, 예술작품과 도시가 유기적으로 혼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건물은 크고 작은 볼륨을 만들어 내고, 크고 작은 건물에 연속성을 부여하여 거리풍경과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게다가 이 분산 배치에는 야외전시공간과 이벤트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서, 방문자는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예술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은 여러 방향으로 커다란 유리문이 나 있어서 예술작품이 마을을 향하여 전시되고 있는 듯 한 개방적인 구성이 된다.

활동 및 예술작품

감동을 부르는 예술체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현대 예술의 숨결을 전달하면서, 참가형 이벤트 등 마을과 일체가 되는 사업을 전개하는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예술에 근간한 지역만들기에 대처하고, 개척하고 도시창조의 역사를 미래에 함께 연결하고, 국제적인 전람회나 이벤트를 실험하는 여러 외국과도 교류하여 시민문화를 높인다.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운영, 국외에서 수집한 작품과 함께 풍부한 자연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디자인의 보급에 의한, 창조적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지역경제를 부흥하게 한다.

‘Arts Towada’에는 토와다시의 현대미술관과 관청가를 관통하여 ‘도시, 자연 그리고 예술의 공생’ 과 ‘예술을 통한 경험’을 컨셉으로 하여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을 설치되어 있다.

미술관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21인의 아티스트들이 도시와 자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22개의 예술작품이 전시되고 있고, 또한 예술작품은 미술관을 위해 제작되어,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예술작품과 공간이 깊게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예술작품은 전시실뿐 만 아니라 옥내외의 모든 공간에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술관 실내 전시공간



미술관과 연결된 야외공간



예술광장과 스트리트퍼니처

예술광장은 토와다시 현대미술관 근처 3개의 큰 공터를, 예술을 이용하여 공원화한 광장으로 체험형 대형 아트워크가 전시되어 있다.



옛 관청가의 이미지를 살린
스트리트퍼니처



* 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스트리트퍼니처와 주변환경



또한 관청가를 관통하는 보행도로에는 아티스트와 건축가들에 의해 벤치형의 스트리트퍼티처(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어, 보다 매력적인 예술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관청거리를 걸어 다니며 예술작품을 즐기면서 관광을 할 수 있고, 관청가에서 주변거리로 연결되어 'Arts Towada'의 효과를 파급시키는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예술광장

'Arts Towada'의 예술을 접목한 마을만들기는 시골의 작은 도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누가 올 것이냐고 우려했지만, 미술관과 주변을 하나의 컨셉으로 장소 디자인 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금은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술관을 둘러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미술관을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술과 예술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므로써 친근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많은 마을만들기와는 달리 지역리더인 시장(市長)의 아이디어와 행정의 노력으로 주민의 마음을 열고, 시작 단계이지만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지역리더의 중요성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또 다른 방법과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

〈참고자료〉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towadaartcenter.com>)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홍보 판플렛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사진 엽서
- 토와다시현대미술관 홍보 PPT(토와다시 내부자료)
- 연구자 촬영 사진 등

* 본 글은 2015년 충남연구원 국외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관계자 인터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